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 협회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67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9월 21일 금요일	Issue No.	1767
		Date	Oct. 31, 1969: Fri.

위험상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닉슨 대통령 특별교서

(워싱턴 10월 31일 밤, 에이피) 닉슨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교서"를 보내고 백악관내에 소비자문제국, 사법성내에 소비자보호국을 신설하고, 소비자보호행정의 강화를 도모할 방침을 명백히 하였다. 교서에서 밝힌 닉슨정권의 소비자보호의 요지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일으키고, 이것을 사법성이 지지하는 법안을 낼것, 이에 최근 문제가 되어있는 식품가도물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를 한다는 두점이다. 교서는 이것이 미국사상 가장 광범위한 소비자보호에 관한 대통령의 권고라고 전제하고, 백악관은 소비자의 소리를 반영시키고, 사법성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제조업자를 만히 적발하기 위해, 이 두개의 기관의 신설을 결정하였다고 말하고있다.

파리의 화평회담

미국의 축소회담안 거부

(파리 10월 30일 밤, 에이피) 30일에 열린 파리 최대 화평 회담제 40회 본회의에서, 랫지미수석대표는 회담의 정돈타개를 위해 "각대표단수석대변인파, 3인을 넘지 않는 수의 고문과 구성된 대표에의해, 11월 4일, 축소회담을 개최하고자한다" 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빈 남비에르남입시혁명정부수석대표는 "랫지제안은 사이공정권을 합법화시키려는것이며, 미국의 침략을 중지시키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답하지안코있다" 라고 이를 거부하였다. 빈수석대표는 이전에 이미 미국이 거부하고있는 "미국과 남비에르남입시혁명정부와의 비공개회담"을 반복해서 요구하였다.

비에르남 참전 5개국, 비밀군사계획 조인

(사이공 10월 31일 밤, 에이피) 미국, 한국, 타이랜드, 오스트레리아, 뉴지랜드의 비에르남참전 5개국의 군대표는, 31일 남비에르남통한참모본부에서 70년 군사작전계획의 비밀문서에 조인하였다. 이계획은 작전목적, 병력, 물자수급, 작전구동을 규정하는것으로, 정시의 조약과같은 구속력은 없으나, 관계각국정부의 방위정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동계위는 내년의 미군의 대규모철병 계획에따라서 되어있는것으로 추측되는데, 미군방위를 이평을 거부하였다. 비에르남은 보병제개 대대를 파견하고있는데, 민간의 보안에만 담당하고있다. 그래서 서방에는 참가하지안는다. 미국 대표로는 에이부람스 원조군사령관이 서명하였다.



미초계정을 남비에트남에 인도

(사이곤 10월31일발, 에이피) 미군은 31일, 해군초계정 13척을 남비에트남군에 인도하였다. 이것으로 미해군초계정 550척중 242척은 남비에트남군에 양도되었다. 또 미공군은 사이곤 교외 비엔.안 공군기지의 에우100 스파.세이버젯트 2개중대를, 루이지아나주 잉그랜드공군기지의 에이 37젯트2개중대와 교체시킨다고 발표하였다. 에이37은 남비에트남공군이 비행훈련을 받고있는 비행기종류이다. 미군사령부의 발표에의하면, 중앙고지 안.게에서의 이슬만의 전투에서 미군 4명이 사망, 8명이 부상하였다. 이외에 산발적으로 적은 충돌이있었다.

추남비에트남 대통령 비에트콩 포로를 대량 석방

(사이곤 10월29일발, 에이피) 추남비에트남대통령은 29일, 11월1일의 "남비에트남국민의 날"을 기념하여 해방전선포로 88명을 석방, 또 통일불교교회의 첨.민 목사를 석사하였다. 석방포로중 63명은 구아낭수용소에잇든 랑정, 25명은 비엔.호아수용소에잇든 남성이다. 이번의 석방은 인수로서는 최대의 규모로, 전에 정부대변인이 발표한것으로는 24명으로되어잇었는데, 사이곤정부가 대대적인 선전도입시 인수를 늘린 이유는 불명이다. 여태까지 사이곤정부가 석방한 포로의 총수는 천명에 가깝다. 첨.민목사는 징병기피자와 랑주병을 도와준 의에 무기.공산주의문서불법소지에의해, 3월 군사재판에서 징역10년의 판결을받았다. 이에대해서 통일불교교회는 심하게 항의하고 "첨.민목사의 체포는 부정하고 비인도적이며, 캐오리교도인 추대통령은 불교절멸을 목적으로 외국 원조를 이용하고있다." 라고 주장하고잇었다. 그후 5월의 불생회에 3년의 금고형으로 감형되고, 그이래 첨.민목사는 사이곤의 군사령부에 금고되어잇었다.

일방적정전을 결의제출 하원의원 1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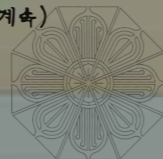
(워싱턴 10월31일발, 공동) 전쟁파를 포함하는 민주당하원의원 19명이 30일, 비에트남에서의 일방적인 정전지지를 표명하는것을 목적으로한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이결의안은 "미국은 미군 병사의 안전이 극히 중요하다는것을 생각하고, 공격을 당할대를 제외하고, 발표를 정지할 기일을 발표한다" 라고 제안하고있다. 이결의안의 설명에잇서서 제이모의원 (여태까지 전쟁파)은 "지시 첨되는 희망하지안는데, 미국병사를 이이상 죽이고 인명손실을 참을수없다" 라고 말하고, 또 복의원 (평 화파)은 "제안의 취지는 하원에도 정전과 첨병첨진을 지지하는자가 있다는것을 대통령에 보이는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에랍 유격대가 레바논 총락을 공격

(베이루트 10월28일발, 에이피) 레바논정부는 27일밤, 라차야시와 마시라.핫산촌을 에랍 유격단이 공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레바논군1명 유격대단 3명이 사망하였다고한다. 이것으로 1주간에걸친 레바논 대 에랍유격대의 긴장의 화평해결의 해방은 엄서졌다. 유격대조직 "엘.화라"의 야셀.에라 화도사령관은 시리아의 다미스카스에서 기자회견을하고, "레바논정부와의 화평 회담이 실현될른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공격을 위해 유격단에 레바논 영토를 자유로 사용하겠다는 우리의 요구는 첨될수없다" 라고 말하였다.

베이루트 라트

29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미국대학의 윤리학과교사를 점령하고잇는 에랍유격대지지의 학생 죄십파에대해서 약2백명의 정부지원파학생이 공격을 가하여, 사상방에 수명의 부상자를내었다.



(제2편으로부터 계속)

창과 유비창, 비품이 파괴되었다. 기동대는 개입할리안크, 폭력의 가두전술을 막기위해 코뮌을 경비하고잇었다. 정부파학생은 극기를들고, "레바논의 독립을 지켜라" 라고 소리치며 침입하고, 죄파학생이 부치는 유격대의 포수들의 사진을 찢고 랑추하였다.

레바논군 에랍 유격대와 교전

에랍. 유격단과 레바논군은 29일, 동레바논의 라해라에서 기관총, 박격포로 교전하였다. 레바논정부의 발표에의하면, 애랍 유격대는 30일 시리아로부터의 박격포등의 율호하에 레바논 영내 구라앗트의 군용비행장을 공격하였다. 또 산지의 라샤야에서도 유격대 대 레바논군의 전투가 계속되고있다. 한편 카이로로부터의 보도에의하면, 애랍연합은 레바논정부의 화평고섭중개의 요청에 대답하여, 유격의 야설.애라후조 사령관을 카이트에 초청하였다고한다.

대의원조예산 대폭 삭감

(워싱턴 10월30일발, 에이피) 연방정부의 대의원조예산 21억9천만불에대해서, 하원의외고위원회는 이미 5억4천2백50만불의 삭감안을 제출하고잇는데, 동위원회의 라스.아데아 공화당하원의원은 "더 대폭삭감안을 제출한다" 라고 태도를 명백히하였다. 이에대해서 국제개발국에서는 "미국은 최소한의 대의원조예산으로서 연방예산의 1불에대해 1점을 지출하여야한다. 정부의 예산요구액은 그에 합당한것이다." 라고 삭감에 항의하였다.

미공군방위력을 대폭 삭감 국방총성 발표

(워싱턴 10월29일발, 에이피) 국방총성은 29일, 미군기지 307개곳의 폐쇄.축소등에따라서, 공군 방위력을 대폭으로 축소, 미국유일의 초음속폭격기 비비58, 86기를 내년1월말까지에 첨수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군방위력의 축소가 가장 눈이디는 주는 후로리다와 애라스카인데, 후로리다주에서는 3주간전, 큐바공군 엠.아이.지 17기가 레이다망을 뚫로 착륙한다는사건이 일어났으며, 또 애라스카는 소령성에 근접한 위치에있다. 이사감에의해, 미본토의 공습에대한 방위력의 일부는 국민공군에 대치되고, 현재보다 코성능의 전투기가 배치된다. 또 첨수되는 비비58폭격기에 대치하여, 스잉그 날개의 에우.비.111폭격기의 배치가 개시된다.

국방건축의 영향 하와이 3천7백명 도타

(호놀룰루 10월28일발) 미국방성의 30억불 질약을 목표로하는 건축정래는 하와이에도 영향을 미쳐, 하와이에의 국방예산이 2,600만불 삭감이 되며, 병원 3,300명, 민간군속고용원 165명이 오는 1년중에 사제 되는것이 확실하게되었다. 확실한것은 금명일중에 국방성으로부터 공표될 예정인데 의 회측으로부터의 정보에의하면, 하와이주관계는 다음과같다. 하와이주돈육군의 삭감인원은 기술자 564, 하와이국민군인원 888명, 오아후도: 와이마나로, 와이아 루아, 가우 두, 에바에잇는 나이키기지, 스코월드에잇는 병영내 제298포병대등은 해체폐쇄, 육군 측의 절약이 약974만불 공군은 립강공군기지의 병원 1,666명 과 민간인 163명이 삭감된다 동시에 18기의 군용기가 해체된다

미국의 공등대입 가능하다

(워싱턴발) 전복대서양조약기구 구구군사령관 윌슨.상관은 이번 워싱턴에서열리는 대서양조약 기구회 회년차총 회후의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레바논정세에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라고 말하였다.

전기회사의 파업에 정부불간섭의 방침 인후레이손 대책의 시련

(워싱턴 10월28일발, 에이피) 닉슨정권은 제네랄.이렛크트리 회사의 파업을 정부의 인후레이손 대책이 시련을받는 기회라코보고, 불간섭의 입장을 취하고, 파업의 성과를 볼 방침이다.

슈트노동장관은 "엄방정부의 조정 화해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이 외에는, 정부는 제네랄.이렛크트리 에는 간섭치안는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군수품의 생산이 정지 되는 경우에는, 소수의 관계공장에 대해서만 테트르.하-트레이 강제령의 발동을 고려할것을 시사하였다. 슈트장관은 이미 "인후레이손 계속의 가정에서서 임금.가격의 결정을 하지안도록" 노동.고용주 사상방에 경고하였다고한다.

"회사측이 강경히 임금인상을 거부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네랄.이렛크트리 회사의 경우에는 정부의 인후레이손 억지책의 영향을 생산시장이 느끼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쉬움게 인상이 되지안는것이다. 그러하면 대폭적인 임금인상을하면, 이윤이 적어지고, 이윤이 크게 적어지면, 회사대표에게는 큰 영향이 가는것이다" 라는것이 슈트장관의 제네랄.이렛크트리의 파업론,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측은 "만일 정부가 불간섭의 입장을 취한다면, 파업에대해서도 말을 말아야한다" 라고 말하고있다.

웨스팅 하우스도 노동계약 만료

제네랄.이렛크트리 노동 고용교섭에 새로운 발전도업시, 11월9일에는 웨스팅.하우스사도 노동 계약이 "근거질 예정이고, 노동조합지도부에서는 웨스팅 하우스사에 주목을 보이고있다. 이에 따라, 국제전기노동조합의 투쟁본부도 뉴욕으로부터 웨스팅 하우스의 노동 고용 교섭이 행하여 지고있는 밋스버-그로 움직인다.

입원료 하후에 백불달러. 의회서 증언

(워싱턴 10월28일발, 에이피) 오늘의 하원예산위공청회에 출석한 전미병원협회대표는 1973년 까지에 미국국내에잇서서의 입원료는 하루에 백불이 넘게될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을 한 전미병원협회 회장 조.지.구래햄박사는 1968년에 하루의 평균입원료가 61불38원이었는데, 금년에는 67불59원으로 올르고, 이비율로 올르면 오는 4년내에 98불37점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입원료의 폭등의 이유로서 구래햄박사는 메디케어의 출현, 인후레이손에동반되는 인건비의 증가등을 들었다. 예산위의 공청회는 사회보장기타의 후생제법안에 관해서 열린것이다.

서독이 자동차 생산 관에서 일본에 끌려

(토론토 10월28일발, 에이피) 26일의 산데이.타임스는 마-크인상으로 일본에대한 국제적압력이 강하여질것이다 라고 다음과같은 보도하였다.

1. 보-크스웨곤은 일본의 경쟁을 두려워해서, 마-크 인상후에도 수출가격을 올리지안할것이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미국에서의 보-크스웨곤의 매상고는 20년이래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일본의 도요다는 시장점영율을 배로 늘리고있다.
1. 미국에잇서서의 보-크스웨곤의 상향은, 서독산업계가 의 그르케 인상에 반대하였는가를 설명 하고있다. 최대의 반대이유는 일본과의 가격경쟁이 결여이다.
1. 금년부터 일본에대한 엔의 인상, 적어도 두축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국제적압력이 강해 질것이다.

